

■ 학습목표

-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심을 깨달을 수 있다.
-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

■ 준비물

- ‘나무자전거’의 ‘지우개’ 음악 및 가사
 - 오디오 또는 음악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 성경(인원수에 맞게 준비한다.)
 - 작업1 : 풀밭 그림이 그려진 전지, 양 그림(인원수에 맞게 준비한다.), 늑대 그림 1개, 투명 테이프(혹은 양면테이프)
 - 작업2 : 풀기도구, 포스트잇(혹은 메모 용지, 인원수에 맞게 준비한다.), 투명 테이프
- ※ 풀밭, 양과 늑대 그림은 'http://didache.eduseoul.or.kr→자료방→디다케 자료방'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들어가는 말(교안을 사용하는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 본 교안은 중고등부(중1-고2)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진행할 때에는 가급적 많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각 자료는 청소년들의 여러 감각을 자극함으로써 수업 내용을 오래 기억에 남게 하여, 배운 것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게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 아래, 이번 교안에 마련된 음악 자료와 그림 자료들을 잘 활용하여 더욱더 효과적인 교리 수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작 기도**

시편 23장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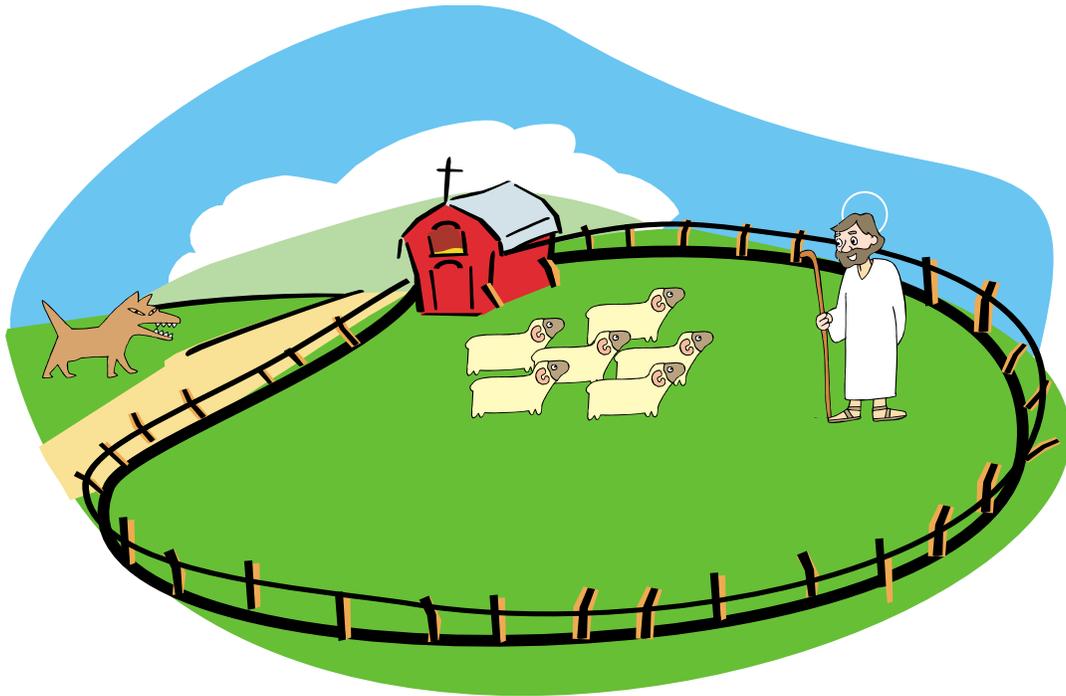
1. 예수님과 나의 관계 생각하기
2.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요소(늑대) 생각하기

인사 목자와 양(羊)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양'(羊)에 대한 이야기로 교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양을 본 적이 있나요? 양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은 아니지만, 동화나 텔레비전 속에서 자주 접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양은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이고, 아주 순한 동물입니다. 무리를 지어 살고요. 하지만 겁이 많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양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고, 늑대처럼 위험한 동물로부터 양을 지켜 주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서의 양(羊)	양은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작업1)**

- ① 풀밭 그림을 설명한다.
- ② 양 그림을 한 개씩 나누어 준다.
- ③ 양 그림 뒷면에 자신의 이름과 세례명을 적는다.
- ④ 한 명씩 돌아가면서 투명 테이프(혹은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자신의 양을 풀밭 그림 위에 붙인다.
- ⑤ 왜 자신의 양을 그곳에 붙였는지 돌아가면서 이야기한다.

풀밭 그림 예)



<p>풀밭 그림 설명</p>	<p>모두들 앞의 그림을 보세요. 푸른 풀밭이 있네요. 그리고 풀밭에는 양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울타리도 있네요. 아마도 무서운 동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인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성당도 있네요. 마치 성당의 종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풀밭 가운데에는 양들을 돌보는 착한 목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p>
<p>풀밭에 양 붙이기</p>	<p>이제 여러분에게 양 그림을 하나씩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 양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선 나누어 준 양 그림 뒷면에 자신의 이름과 세례명을 적으세요. 그리고 내가 양이라면 풀밭 어디쯤 있고 싶은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학생들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다 생각한 친구는 앞으로 나와서 풀밭 위에 자신의 양을 붙이세요.</p>
<p>작업 정리하기</p>	<p>(학생들이 자신의 양을 모두 풀밭 그림에 붙인 뒤) 양들이 많아졌네요. 다 같이 양들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까요?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양도 있고, 성당 안에 있는 양도 있네요. 저런, 울타리를 넘으려는 양도 있군요. 양들의 무리에서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양도 있고요. 지금부터는 돌아가면서 자신의 양을 어디에 붙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학생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p>

선생님들께 양을 풀밭 그림에 붙일 때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나와서 붙이는 것보다 가급적 한 사람씩 나올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친구들이 양을 붙이는 것을 보면서 그 이유를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신은 어느 곳에 붙여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양을 어디에 붙였는지 이야기할 때, 이를 진지하게 듣고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학생에게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예수님의 존재를 가깝게 느끼는 학생에게는 지지와 긍정의 말을 함으로써,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이끌어아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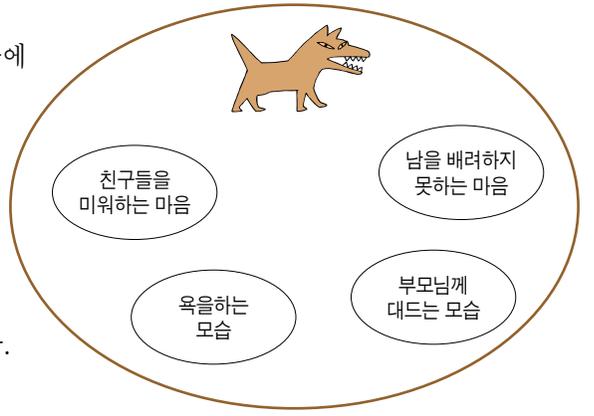
 전개

- 1) 나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늑대) 생각하기
- 2) 착한 목자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기
- 3) '나무자전거'의 '지우개' 노래 익히기

여러분, 그런데 이 평화로운 풀밭에 늑대가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그래요, 양들은 불안함과 두려움에 어쩔 줄 모르며 이리저리 도망칠 거예요. 늑대가 아직 어떤 동물인지 모르는 아기 양들은 호기심에 다가가려 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양들의 목자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양들을 늑대로부터 보호하려고 하겠지요? 안전한 곳으로 양들을 몰고 갈 수도 있고, 늑대를 잡아서 양들에게 다시는 다가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러한 늑대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위협으로 몰고 가는 늑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잠시 생각해 보고, 그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은 다음, 늑대가 그려진 전지 위에 붙여 보세요.

 **작업2)**

- ① 예수님과 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한다.
- ② 생각한 내용을 포스트잇(혹은 메모 용지)에 적은 다음, 늑대가 그려진 전지 위에 붙인다.
- ③ 자신과 친구들이 적은 내용을 통해 우리의 나약함을 이해하고, 예수님께 은총을 청한다.



착한 목자신 예수님

(작업을 마친 뒤) 우리에게 이처럼 많은 유혹들이 있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목자입니다. 착한 목자는 정성을 다해 양 떼를 지키지요.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 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내가 몸소 내 양 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 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에제 34, 11, 15-16).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정성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앓고 있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가 여러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당신께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는 나무자전거의 ‘지우개’ 라는 노래를 배워 보겠습니다. 이 곡은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 청하는 노래입니다. 특히 이러한 바람을 맑고 순수한 어린이의 음성으로 담아서인지 더욱 우리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착한 마음을 갖게 해 달라고 우리 모두 예수님께 청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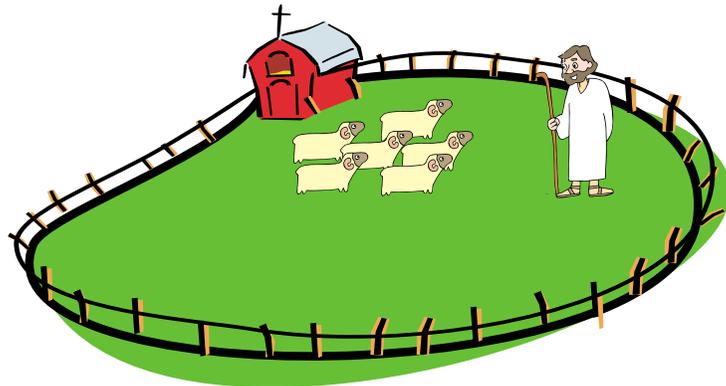
나무자전거의 ‘지우개’

지우개

나무자전거

얼룩덜룩 얼룩진 우리 마음을
하얀 지우개로 꼭꼭 지워 주세요.
예수님의 지우개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얼룩덜룩 죄악을 예수님께서 지워 주세요.
꼭꼭 눌러 지워 주신 깨끗한 마음
깊이깊이 간직하며 살아갈게요.

노래를 들어보니 느낌이 어떤가요?(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노랫말처럼 예수님께 깨끗한 마음을 청해야겠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당신께로 인도해 주는 분이시니 우리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청한다면 꼭 들어주실 거예요.



심화와 실천

오늘의 주제 성구 (요한 10, 11, 14-15)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요한 10, 11, 14-15).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는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 상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있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안다’ 는 말은 그저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 즉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모습 모두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이처럼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 이유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보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착한 목자신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아 주시며,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송봉모,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간』 중에서)

때문에 우리는 착한 목자신 예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늑대’ 라는 내 마음속의 유혹들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 유혹들을 잘 극복하여 언제나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생활할 수 있기를 청해야겠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살펴되어야겠습니다.

마침 기도

주님, 주님께서서는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언제나 저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십니다. 저희가 당신의 그 마음을 깨달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또한 저희 모두가 당신의 울타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알게 하시어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친구들과 우정을 쌓으며 당신의 자녀로 살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아멘.

박현우_울리안나
미술치료사, 서울대학교 창동 성당 중고등부, 서울대학교 본당 중고등학생 사목부(교육부 및 교사연합회 회장단)에서 8여 년 간 교사로 활동하였다. 지난 1997년부터 생활성가팀 ‘사랑의 날개’ 를 거쳐 현재 ‘기독교 생활성가 공동체 The Present’ 찬양 사도로 활동 중이다.